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행태 조사: 2007년 제3차 조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이임순·최규연·차상헌·박혜연·이정재

A survey on the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e third survey in 2007

Im Soon Lee, M.D., Gyu Yeon Choi, M.D., Sang Heon Cha, M.D.,
Hye Yeon Park, M.D., Jeong Jae Lee, M.D.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Objective: The surve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and to prepare adequate teaching programs by investigating their sexual behavior.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e survey was 80,0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ged 13 to 18.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st, 2007 to September 22nd, 2007.

Results: 78,834 students were surveyed and 74,698 (94.8%) students responded the survey. 35,232 (47.2%) of respondents were male students and 39,466 (52.8%) of respondents were female students. 38,820 (52.0%) of respondents were middle school students, 25,051 (33.5%) of respondents were high school students and 10,827 (14.5%) of respondents wer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5.2% of respondents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The average age of the first sexual intercourse was 14.2 years old. 1.0% of respondents had a sexual intercourse before they enter the middle school. The pregnancy rate was 0.3%. Among respondents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the rate of the use of contraceptive methods was 38.2%. The rate of using inappropriate contraceptive methods was 21.6%. The average age of a first wet dream for boys was 13.2 years old. The average age of menarche for girls was 12.4 year old. The rate of respondents who had a sex education was 72.2%.

Conclusion: The average age of the first wet dream and menarche had been decreased. The average age of the first sex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had been decreased. The rate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a sexual intercourse was increased. However, the rate of using reliable contraceptive methods was very low. Therefore, adequate sex educations including effective contraceptive methods needs to be conducted to prevent unwanted pregnancy of adolescents.

Key Words: Sexual behavior, Contraception, Sex education

지난 수십년간 대부분의 국가들은 도시화, 산업화, 정보

화로 급격한 사회의 변환기를 맞으면서 세계의 젊은이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간, 국가간 문화나 가치관과 행동의 차이를 좁히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다시 젊은이들의 성행태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이 성인기를 준비하는 연령대가 과거에 비하여 급속

접 수 일 : 2010. 4. 2.

채 택 일 : 2010. 5. 7.

교신저자 : 최규연

E-mail : kychoi@hosp.sch.ac.kr

* 본 논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07년 실시한 제3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중 성행태 영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성행태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¹

우리나라도 지난 30년간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은 나라 중의 하나로서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동안 빠른 경제 성장,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 사회 가치관의 변화, 인터넷 매체 등의 발달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인식 및 생활 행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각종 성에 관련된 정보가 여과 없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면서 일반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 가치관의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바른 성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청소년의 성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²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숙해 가는 과도기로 급속한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성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신체적으로 왕성한 성적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성정체감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³ 또한 이 시기의 성은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심리·생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신의 성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욕구의 표현과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건전한 이성교제를 통하여 여가를 즐기는 법을 배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성교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성인기에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과거보다 이성교의 교제가 쉬운 반면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여과되지 않은 성문화 행태 및 성인물들에 노출됨으로써 청소년들은 성적 갈등 및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성욕구가 식욕이나 수면욕 등의 생존적 욕구와는 다르게 생리적, 심리적, 관계적인 사회적 욕구가 통합된 욕구로서의 속성이 강하므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이른 성경험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신체 성장 과정을 방해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체중 증가와 같은 경험은 사회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며⁴ 흡연, 음주, 가출, 자살 등의 여러 청소년기 문제 행동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혼전 성경험률은 증가하고 첫 성경험 연

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시작하면서도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병 감염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가 낮고 실제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거나 피임 실패율이 높은 부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여 임신에 이르게 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청소년들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경험률은 연구 대상자의 분포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더 많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경우 입시 경쟁에 따른 과중한 학업부담과 사회 문화의 급격한 서구화에 따라 흡연, 음주, 약물복용, 정신적 스트레스의 위험성과 함께, 불규칙한 생활에 따른 부적절한 식습관, 신체 활동량 혹은 운동량의 부족 및 그에 따른 비만, 그리고 성개방 풍조에 따른 부적절한 이성 관계 등 전반적인 청소년 건강위험 행태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행태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근간으로 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조사 결과를 2006년에 시행된 제2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한국 청소년들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여 2005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건강행태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손상예방, 약물, 성행태, 정신보건, 구강보건, 개인위생, 건강형평성 등의 12개 영역에서 시행되었으며, 본 논문은 2007년에 시행된 제3차 조사 중에서 성행태 영역의 결과를 이용하여 제1차, 2차 조사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18세의 재학생 78,8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선정 방법은 13~18세의 우리나라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모집단의 층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집단을 16개 광역자치 단체별로 구분 (대충)하였으며, 둘째, 각 광역자치단체 내의 시/군을 대도시, 중소도시와 군 지역으로 분류 (중충)하였으며, 셋째, 각 시/군을 집락화 기준에 따라 분류된 대도시, 중소도시와 군 지역별로 집락화 (소충)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전국 234개 시/군 들이 64개의 소충 (집락)으로 분류되었다. 표본학교 추출은 시/도의 도시규모별 집락으로 할당된 표본배분결과를 기준으로 조사 모집단 내의 학교 명부를 정렬한 후에 추출간격을 산정하여 이를 이용한 계통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표본학교 추출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표본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학년별, 학급별, 학생 수 특성을 파악한 후에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표본학교로 선정하였다. 우선 학급구성이 남녀 혼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단독 성별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다음에는 특수반 편성 등과 같은 다른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했는지를 파악한 후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통추출법으로 무작위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표본학생 추출은 표본학교로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을 표본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장기결석, 문자해독 불가 학생, 전학, 자퇴 및 퇴학 등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수행절차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및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연계하여 개발·운영하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 시간 1시간을 할애하여 일괄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익명성이 보장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수행되

었다. 본 조사는 조사지원 담당교사가 홈페이지에서 표본학교 학생 수만큼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조사 직전 학생들에게 배부하였으며 학생은 홈페이지 (<http://healthy1318.cdc.go.kr>)⁵에서 인증번호로 로그인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성행태 영역에 관한 조사지표는 총 10가지로 성관계 경험률, 성관계 시작 연령, 중학교 입학 전 성관계 경험률, 임신 경험률, 인공 임신중절수술 경험률, 피임 실천율, 부적절한 피임법 사용률, 동정 시작 연령, 월경 시작 연령, 연간 성교육 경험률이었다 (Table 1).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기입 방식이라는 본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차표 분석 (cross-tabulation)에 의한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응답상의 논리적인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지표 결과에 가중치를 반영하였으며 가중치는 추출률, 응답률을 고려하였고 이렇게 계산된 가중치에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정보를 이용한 사후가중치로 보정을 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도에 중1~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제1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와 2006년도 중1~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제2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참고하였으며, 2007년도에 시행된 3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 대상자는 78,834명이었으며 이중 전체 조사 응답자는 74,698명으로 응답률은 94.8%였다. 전체 조사 응

Table 1. A research index of region of sexual behavior

Topic	Definition
1. Sexual intercourse	Rate of people who already had sexual intercourse
2. Age of the first sex	Median age of the first sexual intercourse
3. Sexual intercourse before middle school	Rate of people who already had sexual intercourse before middle school
4. Pregnancy rate	Rate of girls who had unplanned pregnancy
5. Artificial abortion	Rate of girls who have experienced artificial abortion
6. Contraception	Rate of people using right contraceptive methods (for almost or almost all sexual intercourse)
7. Inappropriate contraceptive methods	Sex with using inappropriate contraceptive methods
8. Age of the first wet dream	Median age of the first wet dream
9. Age of the Menarche	Median age of the menarche
10. Sex education	Rate of people who had sex education during last one year

답자 중 남학생이 39,466명 (52.8%), 여학생이 35,232명 (47.2%)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38,820명 (52.0%), 일반계고 25,051명 (33.5%), 전문계고 10,827명 (14.5%)이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13,035명 (17.5%), 중학교 2학년 12,849명 (17.2%), 중학교 3학년 12,936명 (17.3%), 고등학교 1학년 12,809명 (17.1%), 고등학교 2학년 11,596명 (15.5%), 고등학교 3학년 11,473명 (15.4%)이었다 (Fig. 1A).

2. 성행태 영역별 결과

1) 성관계 시작 연령, 성관계 경험률, 중학교 입학 전 성관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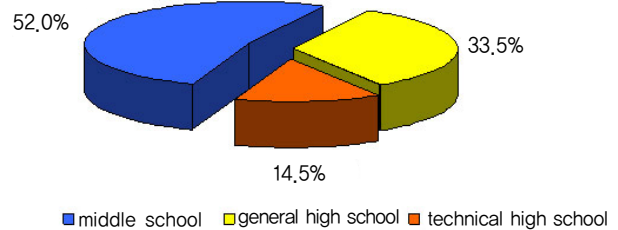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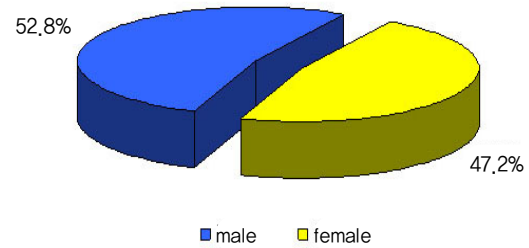
성관계 시작 연령은 조사 대상 전체에서 14.2세였고, 남학생이 14.0세, 여학생이 14.6세로 2차 조사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Fig. 1B). 성관계 경험률은 전체의 5.2%였고, 남학생이 7.1%, 여학생이 3.0%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높았으며, 2006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여학생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학교 급별 비교 시 전문계고 (13.4%), 일반계고 (6.7%), 중학교 (2.2%) 순으로 높았다. 학년별 비교 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중학교 입학 전 성관계 경험률은 전체가 1.0%이었으며, 남학생 1.5%, 여학생 0.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2006년 조사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2) 임신 경험률, 인공 임신중절수술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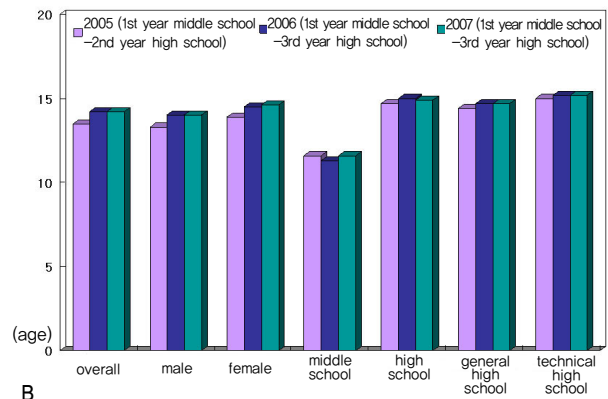
전체 여학생 중 임신 경험률은 0.3%로 2006년의 0.5%에서 감소하였고, 학교 급별로는 전문계고가 가장 높은 비율 (1.1%)을 보였으며 (Fig. 3A),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신 경험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임신 경험률은 10.5%로 2006년 조사결과에서 보였던 13.8%의 임신 경험률보다 3%정도 감소하였다. 인공 임신중절수술 경험률은 조사대상 전체 여학생의 0.3%였으며, 성관계 경험 여학생의 8.4%, 임신 경험 여학생의 79.6%로 2006년 조사 결과 (0.4%, 11.7%, 85.4%)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감소하였다 (Fig. 3B).

3) 피임 실천율, 부적절한 피임법 사용률

성관계 경험자 중 피임 실천율은 전체가 38.2%였으며, 남학생이 39.0%, 여학생이 36.2%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A



B

Fig. 1. (A)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ed people. (B) Age to start having sexual relationship in categories of gender, school years and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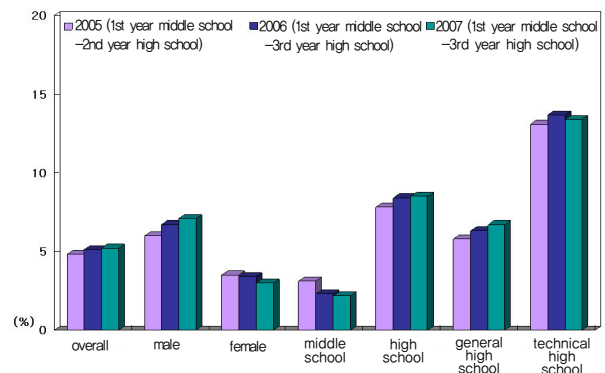


Fig. 2. Rate of sexual experience in categories of gender, school years, and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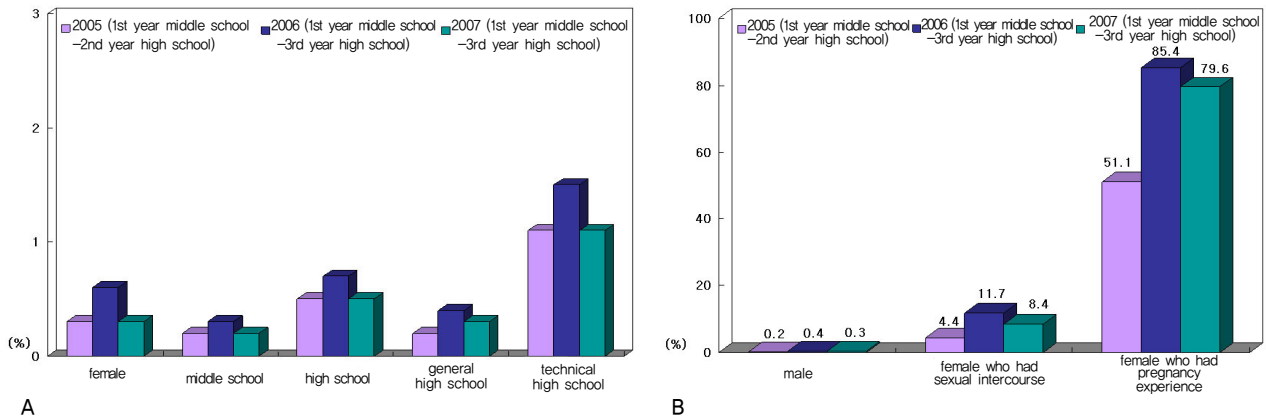


Fig. 3. (A) Rate of pregnancy experience by school among girls. (B) Rate of artificial abortion experience.

다소 높았으며 2006년 조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학교 급별로는 일반계고 (44.3%), 전문계고 (37.0%), 중학교 (28.2%) 순으로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남학생은 고3 (44.0%), 여학생은 고2 (44.7%)가 가장 높았다. 이는 2006년 일반계고, 중학교, 전문계고 순으로 부적절한 피임법 사용률을 보였던 결과와 중학교 2학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Fig. 4). 질의 사정법이나 월경주기법과 같은 부적절한 피임법 사용률은 전체가 21.6%였고, 남학생이 20.3%로 2006년 조사 (24.6%)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2006년 조사 결과인 23.5%보다 오히려 약간 증가한 25.4%의 결과를 보였다.

4) 몽정 시작 연령, 월경 시작 연령

남학생의 몽정 시작 연령은 13.2세였으며, 2007년 조사 당시 중학교 1학년의 몽정 시작 연령이 12.1세였는데 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몽정 시작 연령은 13.7세로, 연령이 낮을수록 몽정 시작 연령도 저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의 월경 시작연령은 12.4세였다.

5) 연간 성교육 경험률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전체가 72.2%였고, 남학생이 69.5%, 여학생이 75.3%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2006년 조사 결과 (62%, 56.8%, 68%)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학교 급별 비교 시 중학교 (80.7%), 전문계고 (68.1%), 일반계고 (60.8%) 순으로 높았다. 학년별 비교 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84.2%, 여학생 88.6%)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43.4%, 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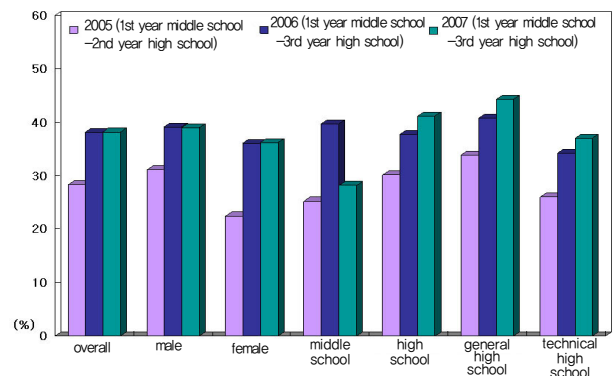


Fig. 4. Rate of carrying on contraception by gender, school years, school.

45.1%)이 가장 낮았다 (Fig. 5). 2006년 조사 결과에 비해 중학교 성교육 경험률이 매우 증가하였다.

고 찰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최근 급속히 변화되어 왔으며, 성을 상품화한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또한 사회 규준의 갑작스런 영향력 감소로 인한 성혁명 및 외래 성개방 풍조 등이 우리사회에 혼재하고 있다.⁶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나라 십대 학생들의 성행동 양상도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학업을 저해하는 일반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⁷ 음주, 흡연, 미성년 관람불가 영화보기 등과 같은 ‘사회화성 성인 모방 성향’의 문제행동이 가장 많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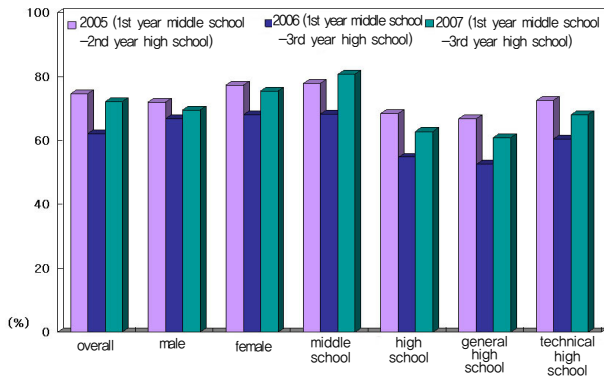


Fig. 5. Rate of participation rates in annual sex education by gender, school years and school.

는 청소년기 발달과정 중 성인으로의 주체성 확립을 지향하는 경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⁸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2)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접촉 실태보고에 의하면 여학생의 현재 흡연 경험률이 7.55%, 과거 경험률이 14.7%에 이르고, 음주는 현재 경험률이 25.2%, 과거 경험률이 44.3%에 이른다고 하였다.⁹ 이와 같이 많은 여자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들과 성관련 경험은 관련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최근 사회 문화의 급격한 서구화에 따라 개방적인 성문화 풍조와 성도덕의 혼란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경쟁에 따른 과중한 학업부담과 사회문화의 급격한 서구화,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의 접근 등으로 인해 성관련 문제들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의 성행동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수술이나 십대 부모 되기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성병의 감염¹⁰ 및 다른 문제 행동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¹¹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다. 2000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산하 성문화 연구소에서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 6개 고등학교 남녀 고등학생 1,1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체적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는 남학생이 33.0%, 여학생이 13.2%였고, 임신 관련 행위는 남학생 13.5%, 여학생 12.4%가 있었다고 조사되었다.¹²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들의 성행태를 보면 5.2%의 청소년들이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학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 청소년들의 성관계 연령이 조사 당시의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교 시기부터 시작

하는 저령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학생들의 몽정 시작 연령과 여학생들의 월경 시작 연령이 저령화되고 있는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도와 2006년도 조사 당시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관계 경험률에 있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2005년도 4.8%, 2006년도 5.1%, 2007년도 5.2%). 이로 인해 중학교 학생들의 성관계 경험과 성관계 시작 연령의 저령화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im¹³에 의하면 청소년이 처음으로 임신하는 연령에 있어서 학교 중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과 학교 체계와의 관계가 빈약할수록 이른 임신의 위험이 커진다는 여러 연구결과¹⁴⁻¹⁷와 부합되며 학교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의 임신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0.3%로 2006년의 0.5%에 비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인공 임신중절수술 경험률 또한 2006년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결과에 대한 원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교육 경험률의 증가와 적절한 피임법의 사용이 인공 임신중절수술 감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반면, 고등학생들 중 전문계고 학생들의 경우 임신 경험률은 1.1%나 되며 피임 실천율은 전체적으로 38.2% 정도로 낮은 편으로 2006년 조사와 유사하였으나, 질외 사정법이나 월경주기법과 같은 부적절한 피임법의 사용률이 21.6%로 2006년의 24.6%보다는 감소하였고, 피임 실천율에 있어서 학교 급별로는 일반계고 (40.8%), 중학교 (37.8%), 전문계고 (34.3%)의 순으로 실천율이 높았던 2006년의 결과와 비교 시 2007년에는 일반계고 (44.3%), 전문계고 (37.0%), 중학교 (28.2%)의 순으로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피임 실천율이 높아진 반면 중학교의 실천율은 낮아졌다. 피임 실천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군은 남학생은 고2 (44.0%), 여학생은 고2 (44.7%)로 남학생의 경우 중2 (49.0%)에서 높았던 2006년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적절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과 학교 급별 교육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여겨진다. 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의 학대 경험, 학교에 대한 태도, 또래집단의 성행위 등이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¹³ 청소년의 임신은 이처럼 여러 가지 변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다각도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와의 관계가 빈약할수록 이른 연령의 임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¹⁸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보상과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조숙한 성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와 학생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학교는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성행태를 인지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고 올바른 성교육과 피임법에 대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학교와 학생들의 관계를 좀 더 밀착시키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의 2차 조사와 2007년 본 조사 결과에서 몽정 시작 연령이나 초경 연령의 저령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어린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숙과 이로 인한 성경험의 저령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데 반해 이들에 대한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72.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6년의 성교육 경험률이 62%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증가한 점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질,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이해도 면에 대해선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실태조사에서도 성교육 경험률은 98%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만족도 (12%)와 이해도 (36%)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²⁰가 발표되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성교육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몽정 시작 연령이나 초경 연령이 저령화되고 있으므로 성교육 대상 연령 또한 낮춰져야 하며 성교육의 내용을 보다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 세대로부터 전해 받은 경구피임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통해 바로잡는 과정이 이 시기의 성교육 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 형성된 피임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은 예기치 않은 임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얻게 되는 성관련 혹은 피임관련 지식을 교정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피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피임 실천율을 높여 인공유산과 미혼모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인공유산이나 미혼모 발생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실로 크므로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성교육에 사회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경험 경험률이 전체의 5.2%에 이르렀으나, 임신 경험률, 성병 경험률, 피임 실천율 등을 고려 시 성교육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는 의문이 든다. 즉, 실제 성교육 현장에서는 성생리, 성심리, 피임, 성병과 관련된 단순 지식 위주의 성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지식 전달, 인지적 수준에 머물러 십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문제 대응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의 목적이 10대 임신이나 비주체적 성행위 등 실질적인 성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 획득에 둔다면, 현실적인 문서 및 영상 자료, 교육용 시뮬레이터의 적절한 활용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의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개방적인 성태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성에 대한 주체성, 자기결정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성생리, 피임 등과 관련된 지식은 이러한 기반 위에 전달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 급별, 학년별 응답 결과의 차이를 인지하여, 내용과 강도 (시행 횟수나 대상 인원 등의 차이로 설정)에 차이를 둔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청소년이 속해 있는 그룹별로 차별화된 성교육을 시행할 필요성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성행태를 조사함으로써 성교육의 대상 시기 조정과 성교육 내용의 현실화를 통한 재구성 등이 시급한 측면에 부합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2006년에 조사된 결과와 2007년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성행태 변화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변화와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현실적인 성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문제이며 이와 더불어 산부인과 의료인 또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성행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실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 조사가 진행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Han SH, Lee MS, Lee SH. A study on the sexual behaviors and its related factor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rea.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000; 17: 19-39.
2. Kim SJ, Kim IO. The effect of video and discussion-based intervention on the adolesc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uality. Journal of Korean Health Study Association 2004; 30: 85-95.
3. Atwater E. Adolescence.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2.
4. Rodriquez C Jr, Moore NB. Perceptions of pregnant/parenting teens: reframing issues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pregnancy problems. Adolescence 1995; 30: 685-706.
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ternet]. The 3rd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0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cited 2010 Apr 2]. Available from: <http://healthy1318.cdc.go.kr>.
6. Cha ES.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in relation to sexualit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Sch Health 1999; 12: 357-75.
7. Kim JC. Research on sexual awareness and investigation science on circumstances of teenagers [dissertation]. Asan: Soonchunhyang Univ.; 2000.
8. Jee HK, Lee KH, Min BK. A relationship between the problem behavior patterns and the sexual curiosity of student adolescents and delinquent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86; 25: 418-30.
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nternet]. Facts and figures on the adolescents contacting harmful environments.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 [cited 2010 Apr 2].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
10. Johnson J.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adolescents. Prim Care 1987; 14: 101-20.
11. Jakobsen R, Rise J, Aas H, Anderssen N. Noncoital sexual interactions and problem behaviour among young adolescents: the Norwegian Longitudinal Health Behaviour Study. J Adolesc 1997; 20: 71-83.
12. Gong SK.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model for schools in Korea.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2000; 8: 71-90.
13. Kim MJ.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age at first adolescent pregnancy. Korean J Youth Stud 2002; 9: 71-85.
14. Abrahamse AF, Morrison PA, Waite LJ. Teenagers willing to consider single parenthood: who is at greatest risk? Fam Plann Perspect 1988; 20: 13-8.
15. Hanson SL, Myers DE, Ginsburg AL. The role of responsibility and knowledge in reducing teenage out-of-wedlock childbearing. J Marriage Fam 1987; 49: 241-56.
16. Olson CF, Worobey J. Perceived mother-daughter relations in a pregnant and nonpregnant adolescent sample. Adolescence 1984; 19: 781-94.
17. Ralph N, Lochman J, Thomas T.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pregnant and nulliparous adolescents. Adolescence 1984; 19: 283-94.
18. Spear HJ. Teenage Pregnancy: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 females who attended an alternative school [dissertation]. Charlottesville: Virginia Univ., 1997.
19. Santelli JS, Beilenson P.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exual behavior, fertility,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J Sch Health 1992; 62: 271-9.
20. Lee IS, Park EH, Lee JJ. A survey of attitude toward sex of unmarried women in South Korea. Korean J Obstet Gynecol 2006; 49: 157-67.

= 국문초록 =

목적: 한국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와 성행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2007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 기간 중 13~18세의 청소년들인 중고등학교 재학생 8만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행태 영역에 관련된 조사지표 10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는 78,834명이었으며 응답자는 74,698명으로 94.8%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39,466명 (52.8%), 여학생이 35,232명 (47.2%)였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38,820명 (52.0%), 일반계고 25,051명 (33.5%), 전문계고 10,827명 (14.5%)였다. 성관계 경험률은 전체 5.2%였고,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다. 성관계 시작 연령은 전체 14.2세였으며, 중학교 입학 전 성관계 경험률은 전체 1.0%였고,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다. 임신 경험률은 0.3%였다. 성관계 경험자 중 피임 실천율은 전체 38.2%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부적절한 피임법 사용률은 전체 21.6%였다. 남학생의 첫 동정 시작 연령은 13.2세였으며 여학생의 월경 시작 연령은 12.4세였다.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전체가 72.2%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결론: 본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동정이나 월경 시작 연령이 저령화되고 있었다. 성관계 시작 연령 또한 저령화되고 있었고, 성관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적절한 피임법의 사용률은 낮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피임법을 포함한 적절한 성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중심단어: 성행태, 피임, 성교육